

IV. 日本 動靜

美國 퇴진, 신흥
세력 부상, 中·日
각축의 APEC 내
의 새로운 역학
구조

APEC 內의 새로운 力學 構造

○ 첨예화하는 中國·日本의 라이벌 意識

- 최근 양국 관계가 계속 악화되는 근원적 배경은 한반도, 나아가 APEC에서의 주도권을 둘러싼 대립때문임
- 최근 日本이 中國의 핵실험에 대해 無償 援助 중지를 운운하자, 中國은 日本의 歷史 意識으로 대응하는 악순환이 계속됨
- 中國은 日本의 對북한 접근을 견제하고 있으며, 남북 통일을 끝까지 반대하는 것은 中國의 가능성이 큼

○ 미국의 퇴진과 신흥 세력의 浮上

- 클린턴의 불참은 APEC內 미국 영향력 감소의 상징적 사건이며, 대신 韓國·인도네시아 등의 신흥 국가가 부상함을 의미함
- 향후 미국은 APEC내 安保 책임자의 역할은 기대되지 만, 결국 'Outsider'의 입장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있음
(「朝日新聞」, 11.21)

은행의 자기 자본
확대만이 장기 경
기 회복의 관건

景氣 回復에 필요한 銀行 自己 資本의 擴大

○ 不良債權 문제의 本質은 銀行의 自己 資本 不足

- 불량 채권 증가 → 자기 자본 감소 → 경영 파탄 확률 증가 → 은행의 자금 중개·리스크 부담·정보 채집 등의 능력 저하 → 대출 기피 → 신규 투자 저조 → 경기 회복의 걸림돌

○ 金融 仲介 機能 改善이 경기 회복의 관건

- 통화 공급 등의 流動性 회복은 필요 조건이지만, 자기 자본 擴大에 의한 금융 중개 기능의 개선만이 장기적인 경기 회복의 관건이 됨
- 市中에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고 低금리를 유지시켜, 그 사이에 收益을 축적시켜 자기 자본을 확대시키려는 현행 대책은 경기 회복이 전제가 된 소극적 대책임
- 보다 적극적인 대책으로 優先株 발행 및 구입에 公的 資金 導入 등이 고려되어야 함 (「日經비즈니스」, 11.16)

새로운 韓·日 관계 정립의 필요성

과거 역사의 올바른 理解를 통하여 兩國 관계의 새로운 정립이 절실히 요구됨

○ 對日 비판 韓·中 공동 步調

- 韓·中 수뇌회담에서 兩國 수뇌는 일본의 잘못된 역사 인식 비판에 공동 보조를 취하였음
- 兩國 수뇌의 對日 비판에 대하여 일본 정부로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임
- 韓·中 양국은 역사 인식의 공동 보조를 통하여 對日 외교 압력 카드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음

○ 戰後 50 年, 과거의 진정한 清算을

- 무라야마 수상은 김 대통령에게 韓·日 합방 조약이 「민족의 자결과 존엄을 무시한 제국주의 시대의 조약이다」라는 서한을 보냈으며, 많은 국민이 이에 공감하고 있음
- 향후 가시적인 韓·日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兩國의 상회담에서 합의한 역사의 共同 研究와 아시아 歷史 資料 센터의 설립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임

(「朝日新聞」, 11.21)

日本型 시스템의 限界

限界点에 도달한 日本型 시스템에서 탈피, 自由社會의 原理에 충실해야 함

○ 日本型의 制度 疲勞

- 日本型 시스템은 國家主義, 官僚主義를 의미하며 이는 戰時에 戰時總力體制로서, 고도 성장기에는 官僚統制體制로서 유효하게 기능하였음
- 그러나 고베 大地震, 奧真理教 사건, 3년 연속 제로 성장, 금융 혼란, 정치 불신 등은 統制色이 강한 政治 經濟 體制(日本형 시스템)의 한계를 드러낸 것임

○ 自由社會 原理 適用해야

- 경제의 量的 成長이 최우선시 되었던 社會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투명한 물과 個人의 目標 추구가 優先視되는 자유社會의 原理를 적용함으로써 보다 내실있고 質的으로 풍요로운 社會를 추구해야 함

(「週刊東洋經濟」, 11.18)